

“보상보다 명예회복”

10·27법난심의회 새 위원장 영담 스님
“역사교육관 부지 조계사 결정 수정할 것”

“보상보다 명예회복이 중요하다.” 12월 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7차 10·27법난심의회 회의에서 새 위원장에 선출된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의 취임 일성이다. 영담 스님은 이날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이 단순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며 “10·27법난으로 훼손된 불교계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지난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재임시 10·27법난 역사교육관 부지가 조계사로 내정된 데 대해 강력한 반대사를 표명했다. 영담 스님은 “조계사로 결정된 부지 선정 부분을 전면 재수정 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아닌 종단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1500억 예산 규모에 맞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부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율된 내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교육관부지 선정과 함께 향후 심의위가 △피해자 진상

조사 및 명예회복 △역사교육관 건립의 양대 과제를 축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스님은 “법난 이후 시간이 흘러 피해 입은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얼굴을 알리기 꺼리는 분들이 있지만 설득을 비롯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매듭을 짓겠다”며 “향후 심의회 활동방향으로 종단 내 조력자 처벌과 역사자료 수집, 관련 법개정 추진 등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역사교육관 전시 자료에 대해 “10·27법난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 억불정책 등 역사 속에 종교가 억압된 사실을 중점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친일문제와 같이 법난 당시 종단 내 조력한 스님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끝으로 영담 스님은 “법난 명예회복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마찰 없이 진행해 당국과 새 출발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종단과 불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2면 노덕현 기자**



“자비심도 가득 담았어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원우회는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자비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선재의 선물보내기 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교원장 혜종 스님(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들과 아름다운동행, 원우회 회원들이 저소득가정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선물의 포장작업을 진행했다.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출범 조계종 포교원, 통합 포교정책 개발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계종 기구로 ‘어린이청소년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12월 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어린이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 혜종) 발족식을 개최했다. 혜종 스님은 발족식에서 “위원회

를 통해 어린이·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계층 포교에 대해 종단이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고 포교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어린이·청소년포교 3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승계하고,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한 포교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원은 2010년 어린이청소년

포교 분야에 책정된 예산 6억 4356만원(포교 후원기금 1억 3000만원 포함)에서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59만원을 책정했다. 2011년까지 초기 사업 안정을 위해 포교후원 기금의 일부를 지원해 장기적인 포교전략 수립과 각 단체의 조직적 통합, 안정적 포교를 전개해 나간다. 위원회는 2010년 2월 중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설치 종령을 검토하고 조계종 총무원 총무회의에 위원회 종령 제정안을 상정, 조계종 중앙종회 승인을 통한 종령 기구화 추진

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각종 콘텐츠, 교육교재, 유관 단체의 관리시스템을 위원회의 사업을 중심으로 집결·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포교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교부장을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그 외 임원은 파라미다, 동원 대표자, 임원 및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지현 스님(동원 이사), 지현 스님(좋은벗통신 이사), 성일 스님(신홍사 청소년수련원 시설장), 원택 스님(파라미다청소년협회 이사), 정련 스님(동원 이사) 등을 위촉했다. **이상현 기자**

법구경
그대는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나니
왜 등불을 찾지 않는가.

현대불교 @ 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전문
운주사

기초부터!
삼시수련의 평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011-336-4665
대인불교조계종
전년도교수축신 **용문사**

연례대일 두리안전문
보이차, 각종茶具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흥포하는
필거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원**
0 60 - 700 - 10 8 0

▶9 소녀시대 ▶14 태응 스님 ▶19 박노해 사진전

사회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산지역 포교에 앞장설 참신한 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본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팀
전화: (02)2004-8200 팩스: (02)737-0697

사람 황채운 반갑다연우야 단장

의왕(醫王) 부처님의 뜻을 이어 약사여래의 화신처럼 인술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 불교계 대표 의료봉사단체인 ‘반갑다연우야’는 2006년 설립돼 매월 5-6회 이상 진료봉사를 펼치며 활동 개시 3년 여 만에 1만 여명에게 도움을 전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은 황무지 같은 불교계 의료봉사 현실을 굳은 신심 하나로 오늘까지 이룬 ‘반갑다연우야’ 황채운 봉사단장의 역할이 컸다. “제 역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부각되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어느새 1만 여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의료봉사를 진행했는지 저도 놀라습니다. 그동안 얼굴에 주름은 늘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며 마음공부를 하

1만여 명에 자비의술 보시

고 있어 행복하기만 합니다.” 황 단장은 ‘반갑다연우야’ 외에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서울 봉은사 수석 부회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년 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놀랄 만큼의 변화도 체험했다. “봉사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만름 했는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준다’고 서운해 할 때가 있었어요. 20년 봉사를 하면서 그런 상(相)은 물론이고, 아만과 아집이 줄어든 걸 느껴요.” 봉사를 통해 주는 것 보다 ‘감사’한 마음을 몇 배를 더 받고 있다는 황 단장은 “‘너(수혜자)’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보살행을 권유했다. 특히 날 때면 철야정진, 의료봉사, 반전봉사 등을 하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그녀의 자비로운 손길이 보다 많은 이에게 다가갈 때 이웃의 아픔 또한 사라지리라. **이상현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연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연구위패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질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팔각봉촉접등 중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연구위패·LED인등·LED전구